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공간에 나타난 잠재적 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irtual line on Daniel Libeskind Architecture Space

Author 이영선 Lee, Young-sun / 정회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스페이스건축학과 실내디자인전공 석사과정
윤상영 Yoon, Sang-Young / 정회원,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전시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윤재은 Yoon, Jae-Eun / 정회원,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실내디자인학과 주임교수

Abstract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has not an discourse on form and representative style, but a new architectural concept of the generative process through the various relationship of the urban context, the continuity of the time and the experience of the people. This architectural concepts make new and various architectural attempts to have a virtuality. The virtuality is a reality to coexist with the present in contemporary philosophy. Daniel libeskind makes various arhcitectural experimentative attempts to reveal his virtuality through his memory as the Jews and his unconscious virtuality. The 'line' has the connotation of architectural reality and virtuality. Every line drawn becomes architectural form for example, walls, windows and makes spaces, and reveal a boundary as a connection. Architecture's visibility understates and structures its invisible aspect, so that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make the architecture together. Daniel libeskind makes the virtual lines having the invisible of unconscious, time, and place. He no longer divide the form of architecture, its spatiality from all the implications which it adresses beyond its own particular built time and place and public unconscious mind. He demands the 'virtual line' that remembers distress and the past and reveal the virtuality of time and place. The virtual line is the sentimental communication of architecture.

Keywords 다니엘 리베스킨트, 잠재성, 선, 무의식, 시간성, 장소성
Daniel Libeskindl, Virtuality, Line, Unconsciousness, Temporality, Placenes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모더니즘건축 이후 공간은 기하학적 질서와 기술중심적인 획일화된 공간에 반대하여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나 해체주의 등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급격한 변화와 속도를 가지는 도시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재현적 양식의 하나로 머물고 만다. 이후 현대 건축은 도시적 맥락이나 과거와 미래까지의 시간적 연속성을 내포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개체들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생성을 이루는 과정으로의 건축으로 이해된다. 단순히 형태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잠재성들 사이의 관계들로 설명하는 건축적 개념들을 가진다. 특히, 특정한 모습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어도 현재의 다른 사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공존하는 실재'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의 현대 철학 개념과 함께 다양한 건축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도 해체적 시도들을 넘어서 비가시적 잠재성과 가시적 건축 현실성이 공존하는 건축공간을 구축하였다. 자신만의 유대인으로써 경험과 잠재적 공간개념들을 확장함으로써 자신만의 공간특징으로 '선'을 발전시킨다. 그는 선형의 벽이나 창호 등의 요소적 형태로 드러나는 선과 이러한 선들의 교차로 만들어지는 공간, 이 사이의 관계인 경계가 이루는 선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된다. 이 가시적인 선들은 기억과 흔적, 시간과 도시적 매트릭스, 희망의 빛과 같은 의미를 가진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선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독특한 경험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의 건축적 표현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을 중심으로 공간에서 드러나는 건축적 표현 요소들을 분석, 이를 바탕으로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공간에서의 잠재성의 의미와 함께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공간에서 잠재적 선이 나타내는 특성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방법은 먼저 2장은 이론적 고찰로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성장배경과 이를 통한 건축적 배경을 살펴보고, 잠재성의 철학과 현대건축공간에서 잠재성의 표현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공간에서의 잠재성의 의미를 도출한다. 그리고 잠재성의 의미를 바탕으로 공간에서 나타나는 선과 잠재적 특성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위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작품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잠재적 선의 구체적 특성들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4장에서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공간에 나타난 잠재적 선의 특성을 정리한다.

사례 분석의 범위는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작품들 중에서 완공된 작품들이며,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비롯한 그의 건축적 개념이 잘 드러나는 박물관으로 9작품을 선정하여 그의 건축공간에 나타난 잠재적 선의 특성을 분석해본다.

2. 이론적 고찰

2.1.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성장 배경과 건축 배경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1946년 폴란드 로지에서 태어났으며 구소련, 폴란드,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한 유목민으로의 삶과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런 유목민적 삶을 활용하여 그는 “프로젝트를 맡을 때마다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상을 모두 끄집어내었다.”고 하였다.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양친은 모두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분들이다. 이러한 독특한 가족사가 그의 작품에 투영되었는데, 특히 고통들이 무의식속에 남아있는 트라우마나 기억 등에 관심¹⁾을 가진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유대인의 역사와 흔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동체적 트라우마에 대한 적극적 치유노력으로 홀로코스트의 기억에 대한 생각과 메시지를 건축이라는 미디어로 표현²⁾하려 한다. 유대인으로서의 다니엘 리베스킨트에게 ‘기억하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히로시마 예술상(2001) 수상소감으로 “건축은 상기(相忌)를 발생시킨다. 상기로써 싸움을 대항한다.”라고 하며 과거의 상처를 건축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라 하였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어린시절 아코디언으로 음악신동이라 불리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드러내었다. 건축가 이전의 음악가로서의 경험은 음악구성 원리를 연구하고 이해하도록 하였다. 아코디언이라는 악기의 한계로 인해 음악을 그만두며 시작한 테생연습을 통해 음악구성의 원

리가 스케치의 형태를 빌려 공간으로 발전되면서 음악-회화-건축으로 연결되는 독특한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 초기 드로잉인 「Chamber Works (1983)」에 등장하는 복잡한 선들은 “마음의 방 안에서 교차하는 건축과 음악의 생각들을 탐구한 것이다.”³⁾라고 설명하였다. 음악 속에 내포된 건축적 언어를 발견하고 음악의 비물질성을 물질화하려고 하였다. 건축과 음악의 상호 얽힘과 상호 텍스트성을 통한 하이브리드에 관심⁴⁾을 기울이게 된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음악의 기술이나 기법의 문제보다는 개념적이고 은유적인 일관성의 문제를 재구성했다. 음악은 표현의 한계, 외양의 경계에 도달하며 그 저변의 것은 텅 빈 형태적 질서의 정적으로 포용⁵⁾된다. 오로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이미지와 텍스트,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비가시적인 것은 내부의 빈 공간들로 나타난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쿠퍼 유니온에서 존 헤이덕(John Hejduk)과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에게 직접 사사받는다.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쿠퍼 유니온의 졸업 작품으로 만든 콜라주 작업은 기존의 건축 언어 체계 안에서 건축 언어의 결정주의적 사고를 벗어나 새로운 건축 언어 문법을 시도⁶⁾하려는 의도이며 기존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려는 목표였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도성이 결여된 콜라주 방법을 통해 비현실적 공간 관계를 설정하고 우연적이고 사건 발생적인 공간, 이질적이고 복수화된 공간을 발견하려고 하였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해체주의적 표현경향이 두드러지는 독특한 건축표현 특성을 형성하였다. 형태들은 비틀리고 단절되며 그런 매스들의 상호관입을 통해 전통적인 구축의 질서에 반기를 들어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형성된 복잡한 텍스트들은 사유체계의 한계를 벗어난 발견으로 형태적 실험과 사유의 확장을 가져온다.

<표 1>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배경

성장 배경	경험적 특징	건축 배경
유대인과 홀로코스트	유목민적 사고	다양성
	홀로코스트	치유성
	기억하기	미래성
음악적 경험	음악구성원리	혼성성
	물질과 비물질성	상호성
	빈공간	은유성
쿠퍼유니온	콜라주	우연성
	비현실적 공간관계	이질성
	해체주의	실험성

3) 질 들뢰즈, 베르그송주의, 김재인 역, 문학과 지성사, 1996, p.137

4) 이도희,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적 사고와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31권 1호, 2004, p.34

5) Jos Luis González Cobelo, Architecture and its double, El Croquis 80, 1996, p.37

6) Daniel Libeskind, 'Collage' in Education of Architecture, The Monacelli Press, New York, 1999, p.316

1) 다니엘 리베스킨트, 낙천주의 건축가, 마음산책, 2006, p.79

2) 송진호,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공간사고와 디자인 수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1, p.12

2.2. 다니엘 리베스킨트와 잠재성

(1) 잠재성의 철학

잠재성과 실재성은 현대 서구 철학자들이 핵심적으로 유지하는 존재론적 범주이다. 이 잠재성에 대한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잠재태, 가능태 등등의 의미를 가진 dynamis(뒤나미스)의 개념에서 등장한다. 그는 질료-형상의 문제를 가능태-현실태의 문제로 다루면서 뒤나미스라는 잠재태의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한다.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가능태(potentia)와 현실태(actus)를 수용하여 신 존재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기독교적 세계관의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후 근대철학자 스피노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와 현실태의 통일으로 잠재성(potentia) 개념을 중심으로 모든 신체, 모든 영혼, 모든 개체가 존재하는 내재성의 공통평면⁸⁾에 대한 개념을 세웠다. 라이프니츠는 무한한 세계들의 속성에 잠재한 비물질적 속성을 모나드(monad)라고 하였다. 생명체는 잠재적 사건들의 총체가 접혀있고 각 생명체는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펼치는 것이라고 하며 “세계는 무한히 접힌 주름이다”는 주름개념⁹⁾을 주장하였다. 근대 이후 잠재성의 의미는 그 이전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중세의 초월자의 권능으로의 잠재성은 이제 물질 자체가 담고 있는 잠재성으로¹⁰⁾ 그 의미가 바뀌게 된다.

베르그송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현실태 도식의 인과론을 비판하며 잠재태-현실태로서의 실재를 이야기한다. 잠재성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잠재성으로서 실재성을 소유하고 있다. 베르그송 이후로 잠재성은 현재와 공존하는 실재로의 잠재성¹¹⁾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베르그송의 개념을 받아들인 들뢰즈에 이르러 가능성(possible)-실재(real)의 대립항과 잠재성(virtual)-현실(actual)의 대립항으로 구분되며, 가능한 것은 실재화(realize)되어 실재가 되고, 잠재적인 것은 현실화(actualize)되어 현실이 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잠재성과 실재는 대립항이 아니라 그 과정의 차이로 이해하게 된다. 들뢰즈의 철학은 다양체에 대한 이론으로 모든 다양체는 현실적인 요소들과 잠재적인 요소들을 함축한다. 순수하게 현실적인 대상이란 존재하지 않고 현실적인 모든 것은 잠재적인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안개로 둘러싸여¹²⁾ 있다.

<그림 1> 잠재성의 철학

(2) 공간의 잠재성

모더니즘 건축이 기하학적이고 획일성의 문제점과 이에 반해 시도되었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피상적 다양성의 또 다른 획일성의 재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건축은 잠재성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잠재성의 개념은 들뢰즈의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르코(1988)》의 출간 이후 현대건축에서 다양성의 문제를 ‘주름’의 개념을 통해 차이 자체를 인정하며 다양성의 생성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건축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건축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더니즘 건축과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 형태에 더 관심을 가졌다면 현대건축은 잠재성의 개념을 배경으로 도시적 구조, 컨텍스트, 풍경,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도시적 이질성, 복잡성이 증대하고 관계가 복잡해진 현대에는 더 이상 형태나 구성의 방법으로 건축과 도시를 계획,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건축의 문제는 개체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이며 형태가 구조로부터 정해진다는 인식이 시작되었다. 건물의 형태 자체보다 건물이 갖는 도시적 구조와 지형학, 도시적 장을 이루는 컨텍스트와의 관계가 건물을 규정한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잠재적인 시공간 개념과 그것의 현실화에 대해 사유하고자 한 잠재성의 철학과 함께 그 사유가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잠재성의 사유를 통해 건축은 장소가 내포한 잠재성을 존중하여 어떤 것이든 하기 보다는 어떤 것으로 생성해가게 기다리는 방식이거나, 사물 혹은 장소가 가진 잠재적 형태들을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잠재성에서 현실성으로 이끌어내는 방법¹³⁾은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공간에서 잘 나타난다.

7) 힐쉬베르거, 서양철학사 상권, 강성위 역, 이문출판사, 2008, p.254

8) 이진, 잠재성의 유형 및 그 미학적 의미, 서울대 석사논문, 2004, p.6

9) 이정우, 접힘과 펼쳐짐, 그린비, 2012, pp.106~107, p.123

10) 이정우, 현실성·잠재성·가능성, 건축과 사회, 2008, p.50

11) 질 들뢰즈, 김재인 역, op. cit., p.137

12) 질 들뢰즈,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역, 이학사, 2007, p.518

13) 이정우, op. cit., 2008, pp.47~48

<표 2> 공간에서 표현되는 잠재성

표현방법	잠재성 표현특성	표현 사례 ¹⁴⁾
존재에서 생성으로	장소가 내포한 잠재성을 존중하여 어떤 것으로 펼쳐지고 생성해가도록 기다리는 방식	베르나미 추미렘 쿨하스
잠재성에서 현실성으로	사물 혹은 장소가 가진 잠재적이고 유동적인 형태를 현실성으로 이끌어내는 형태학적 방식	프랭크 게리 다니엘 리베스킨트

(3) 다니엘 리베스킨트 공간의 잠재성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자신의 작품은 과거를 직시함으로써 미래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으려 노력한다고 하였다. 빛, 소리, 보이지 않는 영혼, 장소 감각, 역사에 대한 경외 등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는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대상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¹⁵⁾, 건물이 영적인 울림을 지니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육신과 영혼 모두를 반영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비의미적이고 비재현적인 선들, 지역들, 흔적들이 작동하는 총체이자 보이지 않는 힘들의 단면인 다이어그램은 어떤 형상이나 형태의 재현 혹은 표상이 아닌 잠재적이고 미분적인 관계 자체를 보여주는 ‘암시하기’ 혹은 ‘일의 가능성들’을 도입하는 것¹⁶⁾이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대지 위의 무형의 망 또는 관계를 연결하는 축들과 유대인의 역사가 물리적 흔적뿐 아니라 정신적 연결성을 갖는 잠재적 관계임에 주목하였다.

또한, 공간은 단순히 과거 흔적을 보존하고 표상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동선을 통해 다질적이고 미로같은 흐름의 지속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다양체의 논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안에는, 항상 무언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어떤 것이 존재하며, 그것은 그러면서도 우리의 ‘생성들’의 일부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잠재적 의미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¹⁷⁾이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도시와 건축의 관계에서 ‘장소의 혼’을 찾으려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맥락주의나 유형학적 일관성이 아니라 잠재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의 지속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에게 과거와 현재는 공존하는 동시적 성격을 가지며, 과거와 미래 사이의 맞물림이라는 연속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지속으로의 시간의 개념을 의미¹⁸⁾하는데 계속해서 분화함으로써 열린 전체로 작동하는 잠재적 시간의 형식을 포함한다. 또한 서로 공명하는 개념들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절대적 지평선인 내재성의 평면이 존재하듯이, 형태, 주체는 더 이상 없으며, 오로지 ‘형성되지 않은 질료의 미세한 입자들 사이의 속도의 관계들’과 ‘익명의 힘을 개체

화시키는 변용적 상태들’¹⁹⁾ 만이 있는 내재성의 평면으로의 잠재성의 도시장소의 의미를 포함한다.

다니엘 리베스킨트에서 실재는 잠재적인 것의 선형적 분열인 반면, 잠재적인 것은 수많은 무한성들이 압축된 미로이다. 그는 “잠재적이기 위해 프로젝트는 실제로 지어져야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최종의 목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런 맞닥뜨림을 향해 열려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림 2> 다니엘 리베스킨트 공간의 잠재성

2.3.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선과 잠재적 특성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공간은 독특한 선의 개념으로부터 드러난다. 1979년 그려진 드로잉에서부터 최근 건축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의 개념이다. 그의 드로잉을 특징짓는 것도 바로 복잡한 선들이고, 이런 선에 대한 생각을 건축물에서 매스와 창 의 형태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선은 그의 독특한 공간개념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3> Micromegas, 1979 *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에서 “선은, 모든 그려진 선은 벽이 되는 것처럼 기하학과 건축적 현실의 암시를 가진다. 건축에서 벽은 언제나 선의 부재이다. 이러한 질문 뒤에는 또 다른 잠재적인 선이 있다.”²⁰⁾고 하였다. 그는 선 건축에 내재된 잠재적 선의 현실화를 물질적 측면으로 나타낸 결과로 보았다. 물질적으로 드러난 선은 먼저 기하학과 건축적 현실인 형태이다. 이러한 선들의 교차로 비물질적 공간인 텅 비워진 내부공간이 형성된다. 선은 세계의 경계인 공간의 지평을 결정하는 한계²¹⁾를 나타낸다.

<그림 4> Mapping the In-visible City, 1991 *

14) 이정우, op. cit., pp.47~48

15) 다니엘 리베스킨트, 낙천주의 건축가, 마음산책, 2006, p.85

16)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민음사, 2008, pp.118~119

17) 존 라이크만, 들뢰즈 커넥션, 김재인 역, 현실문화연구, 2005, p.109

18) 봉일범, 잠재성의 차원, spacetime, 2005, p.69

19) 질 들뢰즈, 스피노자의 철학, 박기순 역, 실천철학, 2012, p.172

20) Daniel Libeskind, a conversation between the lines with Daniel Libeskind, El Croquis 80, 1996, p.7

21) 정인하·김홍수,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 공간 개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건축역사연구학회지 제11권 1호, 2002, p.41, p.44

* 그림출처 : Daniel Libeskind, El Croquis 80, 1996, p.32, p.78

(1) 무의식과 선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선은 그어진 선이 벽이 되는 기하학과 건축적 현실에 대한 함축성을 가지며 고정된 의미나 형태 없이 불확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선이다. 그는 평면과 매스를 불규칙한 기하학으로 얇게 도려내거나 공간의 볼륨을 면들의 접합들로 구성하여 예리한 예각의 선들을 형성하였다. 불규칙적으로 찢어진 선형의 개구부들을 유대인의 트라우마를 강한 물성으로 드러내는 건축요소이며, 긴 선형의 동선 매스는 홀로코스트의 기억들을 상기시킨다.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무의식적 잠재성을 직선, 사선, 곡선 등의 불규칙한 전개와 상호중첩으로 현실화하여 불확정적인 형태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들의 능동적인 변형으로 새로운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생성하게 된다. 유대인의 역사와 흔적에 대한 무의식을 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축적 현실화하여 상처를 기억해내고 치유하려고 하였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복잡한 선들의 교차와 중첩을 통해 빈 공간(void)을 드러내게 된다.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선을 통해 텅 빈 공간, 부재, 침묵 등 비가시적인 잠재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현실화된 선의 모티브와 함께 선들이 겹쳐짐으로써 비워진 공간, 예측이 어려운 복잡한 동선 등의 비물질성은 유대인의 부재, 도시속의 빈 역사적 공간, 창조적 평면으로의 공간 등으로 잠재적인 것으로서 부재의 개념을 표현한다. “공간은 존재하지 않고 공간들이 존재한다. 공간은 복수적이고 이질적이며, 차이들을 가진다.”²²⁾고 하며 복수적이고 이질적인 공간들을 강조하였다. 건축을 구성하는 것은 건물의 형태 그 자체가 아니라 건물 내부의 텅 빈 부재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²³⁾으로 그려진 선들이 아닌 선들 사이의 공간들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으로 드러나는 형태나 공간은 상호 작용으로 불확정적인 변화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텅 빈 공간속에 파편적으로 전개되는 사람과 빛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선형적 움직임을 통해 도시와 유대인들의 삶 사이의 시·공간적인 잠재성이 펼쳐지는 사건발생의 장소²⁴⁾가 된다. 선들이 가지는 잠재적 관계성에 중점을 맞추면서 미로는 확대되고, 내부 공간의 짜임과 구성은 외부에서 알 수 없어지므로 관람자들은 보이지 않는 허공의 선만을 경험하게 되어 기존의 공간구성을 파편화²⁵⁾하는 새로운 생성적 요소들의 경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그는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는 방법, 특히 과거의 공간에 새로운 공간을

이질적으로 병치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이질적 시공간성을 가진 공간의 충돌은 기존의 공간의 질서를 파편화시켜 장소가 가진 잠재적이고 유동적 관계를 현실적으로 이끌어내어 새로운 건축적 경험과 감각을 만들어내는 생성적 경계로서의 선이 된다.

<표 3> 무의식과 선

잠재성	선	잠재적 선
무의식	형태	역사적 상처와 유대인의 개인적 집단적 무의식을 드러내는 선들의 불규칙적 형태들과 지속적 변형
	공간	다양한 선들의 중첩과 교차로 드러나는 비가시적 엉킴과 짜임의 텅 빈 부재의 비물질적 공간
	경계	선형의 형태와 빈 공간의 파편적 구성과 이질적 시공간의 이접을 통한 기존질서의 파편화와 생성

(2) 시간과 선

선은 시간과 관계된다. 역사와 시간의 움직임을 펼치고 통합하는 선이다.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시간의 움직임을 기초로 한다. 순환하는 다시 돌아오든 간에 역사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는 선을 펼치고 통합하는 시간의 움직임을 기초로 하고 그 움직임은 펼치고 통합하는 선²⁶⁾이다. 이러한 무수한 선들의 병치와 중첩을 통해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대지에 기억과 잠재성의 흔적이 시간에 따라 중첩된 건축공간으로 개념화한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을 설계하면서 선을 통해 개인이 가진 기억과 대지가 가진 기억을 융합하여 하나의 흔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베를린에서 유대인들의 기억과 흔적을 과거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잠재성들이 건축적으로 현실화되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드러나도록 하였다.

지상·하를 관통하는 빈 수직 공간,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복잡한 사람의 동선 등이 동시에 얹히면서, 등질적이고 고정된 공간에서 미로처럼 비이상적인 사건들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²⁷⁾이다. 이처럼 유대인의 과거 흔적을 단순히 보존하고 표상하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움직임을 선들의 사이가 동시에 만들어내는 빈 공간들은 새로운 시간 경험을 통해 현재의 공간으로 진화한다. 움직임으로서의 선의 개념은 과거의 경험이 포함되어 있는 지속의 시간을 잠재적으로 가진 사건발생의 시물라크르로서의 건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홀로코스트를 겪은 여인이 수용소에서 보낸 끔찍한 2년 동안 어두운 기차 화물칸 안에서 틈으로 보이는 하늘의 흰선을 되새기며 기적이 일어나 무사히 살아나가게 될 것이라 굳게 믿었던 이야기처럼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공간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선은 희망을 드러낸다. 특히

22) Daniel Libeskind, The space of encounter, Universe, 2000, p.69

23) 정인하·김홍수, op. cit., p.44

24) 권태일·이동연, 근원적 다양성으로 본 집합의 건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권 10호, 2004, p.205

25) 이선혜·송대호,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이념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3권 4호, 2011, p.56

26) Daniel Libeskind, a conversation between the lines with Daniel Libeskind, El Croquis 80, 1996, p.7

27) 권태일·이동연, op. cit., p.206

어두움과 대비되어 예각과 모서리의 틈으로 들어오는 빛의 선은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 말하며 희망과 믿음을 담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인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조이다. 기억은 빛 속에서 떠오르고 나머지는 어둠에 잠겨들기²⁸⁾에 빛은 순환하듯 돌아오는 역사를, 미래를 잠재적으로 담고 있는 선이다. “아마도 보이지 않는 선은 단지 당신이 볼 수 없는 추상적인 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을 필연적으로 미래를 주변에서 움직이게 하는 선들일 것입니다.”²⁹⁾라고 하였듯이 빛의 선은 미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잠재적 선인 것이다.

<표 4> 시간과 선

잠재성	선	잠재적 선
시간	형태	과거의 시간으로 개인이 그리고 대지가 가진 기억과 흔적들이 융합하여 드러난 형태
	공간	현재의 시간으로 미로처럼 관통하는 동선과 사람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지속적 변화의 공간
	관계	미래를 의미하는 시간으로 어둠 속에 잠겨들어 잠재적인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는 선

(3) 장소와 선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선을 복잡하고 상호 연결성을 지닌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조각, 건축, 도시를 생성시키고 있다. 그의 건축에서 선은 일종은 생성 다이어그램으로 작용하여 도시적 정보들을 잠재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비가시적 선들의 매트릭스를 통해서 모든 건축의 공간과 형태가 드러나게 된다. 베를린에서의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에서의 선에 역할에 대해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흔적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 구조물이나 도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³⁰⁾라고 하며 건물과 도시 사이에 경계를 약화시킴으로 장소를 만들고 끊임없이 비가시적인 도시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맥락주의나 유형학의 건축처럼 도시 맥락 속에서 가시적 형태들이 아니라, 기억과 시간에 담긴 부재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건축물이기 이전에 그 장소의 모든 역사를 담아야 한다.”³¹⁾고 하였다. 장소는 이미 잠재적으로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도시적 컨텍스트를 포함하며, 기억과 흔적의 선들을 통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이지만 아직 없는 형태와 사건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역사의 붕괴와 소멸을 겪은 후에도 사람이 발걸음이 여전히 똑같이 그 장소를 지나고 있음을 깨닫는 것보다 신비롭고 유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고정적 나열의 역사

의 특정 순간에 기대고 있기 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 겹의 층으로 엮여 그 장소가 가지는 시간의 공간감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적 유산의 흔적 뿐 아니라 인간의 움직임과 도시적 정보의 선들이 교차하여 만들어 내는 공간은 과거의 지속으로의 현재의 의미를 가진다. 장소의 역사는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이 남긴 흔적들의 집합체이며, 과거의 흔적들이 불연속적으로 현재와 중첩되어 나타나고 미래의 사건 또한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³²⁾ 복잡화된 시간성을 함축한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장소성에 대해 맥락주의나 유형학의 건축처럼 도시 맥락 속에서 가시적인 형태들의 일관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건물의 비가시적 잠재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겼다.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건축물이 대부분 그러하듯, 처음에는 주변에 융화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섞여들지 못한다.”³³⁾고 하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건축을 시도하고, 새로운 건물이 주위 환경에 더해져 새로운 관계들을 생성해내도록 한다. 서로 시공간의 배경이 다른 텍스트들을 불연속적으로 몽타주로 충돌하도록 하여 단일하고 총체적인 전체가 아닌 불연속적이고 단편적인³⁴⁾ 새로운 사건 생성의 몽타주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표 5> 장소와 선

잠재성	선	잠재적 선
장소	형태	비가시적 도시적 맥락과 장소성을 잠재적으로 표현하는 매트릭스를 통한 새로운 형태 생성
	공간	사물들의 부재를 통해 여러 겹의 층으로 엮여있는 과거-현재-미래의 복잡화된 시간의 장소
	관계	이질적 텍스트들의 몽타주적 이점으로 장소에 새로운 충돌과 새로운 사건을 생성

3.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공간의 사례분석

3.1. 분석 개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한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공간에서 잠재성의 의미로 무의식, 시간, 장소를 도출하였다. 세 잠재성의 의미를 건축공간에 나타난 선의 세가지 모습인 형태, 공간, 관계로 구분하여 선의 잠재적 특성 9가지 분석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 키워드를 통해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공간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의 범위는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작품들 중에서 완공된 박물관 사례 9점이다.

3.2. 사례분석

28) 다니엘 리베스킨트, 낙천주의 건축가, 마음산책, 2006, p.130

29) Daniel Libeskind, a conversation between the lines with Daniel Libeskind, El Croquis 80, 1996, p.13

30) Daniel Libeskind, El Croquis 80, 1996, p.71

31) Daniel Libeskind, The space of encounter, Universe, 2000, p.69

32) 송진호, op. cit., p.26

33) 다니엘 리베스킨트, op. cit., p.130

34) 이도희, op. cit., p.36

<표 6>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공간에 나타난 잠재적 선의 특성 사례분석

프로젝트 개요		잠재적 선의 특성 분석											
Felix Nussbaum Haus Osnabruck Germany	1998	무의식과 선			시간과 선			장소와 선					
		형태	공간	경계	형태	공간	관계	형태	공간	관계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첫번째 완성된 건축물로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Felix Nussbaum의 그림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그의 삶을 반영하여 디자인되었다.	형태	누스바움과 유대인의 기억을 담고 있는 세 개의 사각형 볼륨이 내부공간에서 일어나는 축들의 교차를 외부 형태로 드러내는 세 불확정적 선형의 교차			형태	누스바움의 삶을 드러내는 선형의 공간 구성과 물성과 기존의 건물과의 이점으로 드러나는 대지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억			형태	유대인 문화유산과 누스바움 삶을 기존 박물관과 연결하여 대지의 선을 연속적인 선으로 바꾸어 역사적 상징들을 새로이 생성해내는 유연한 매트릭스			
	공간	누스바움이 수용소 생활 당시 내재하는 압박과 속박의 경험을 제공하는 좁고 비어있는 예각의 빈 공간인 누스바움 복도와 세 개의 선들의 맞물림과 간섭을 통해 만들어지는 삼각형 보이드			공간	누스바움의 삶과 같은 갑작스러운 마주침과 예측 불가능한 교차, 막다른 골목, 드러나지 않는 출입구 등으로 이루어진 혼란스럽고 예측불가능한 동선			공간	과거 누스바움의 삶, 현재 사람들의 움직임의 동선, 미래 희망의 빛이 어울어진 복합적 시간의 공간으로 옛 건물과 대조적 새로운 건물이 가지는 함축적 장소성			
	경계	외부로 보이지 않는 동선과 선형의 형태들의 관계를 통한 파편적 공간 구성과 기존의 역사박물관과 빌라와의 충돌을 통한 새로운 생성적 경계			경계	과거-현재-미래가 점착된 생명력을 위한 시간과 엮이는 희망적 미래를 나타내는 슬릿이나 선형조명에 의한 빛			경계	기존 박물관과 이질적인 재료와 형태의 공간의 몽타주적 이점으로 기존 질서를 새롭게 관계맺는 불연속성			
프로젝트 개요		잠재적 선의 특성 분석											
Jewish Museum Berlin	Berlin, Germany 1999	무의식과 선			시간과 선			장소와 선					
		형태	공간	경계	형태	공간	관계	형태	공간	관계

전쟁의 첫 시기와 홀로코스트의 반향을 위해 지어진 박물관으로 1735년에 지어진 바로크 양식의 옛 건물과 새로운 건물 사이의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시공간 깊이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형태	비가시적인 다윗의 별조각들로 이루어진 가시적 축을 구성하는 지그재그의 매스와 유대인들의 장소를 연결하는 선들이 연결되는 의미를 가진 선형의 형태와 창			형태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는 두 축으로 구성된 건물을 지하에 형성된 3개의 축으로 서로 다른 시간의 역사를 연결하여 비가시적 관계가 베를린의 기저에 존재			형태	베를린에 거주했던 독일계 유대인들의 거주지를 연결하여 형성된 선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다비드의 별			
	공간	관통할 수 없는 홀로코스트 보이드는 텅 빈 공간으로 비물질적 공간의 잠재적인 것으로서 부재의 공간을 표현하고 발터벤 야민의 「One Way Street」의 60개의 단편을 의미하는 60개의 단면의 공간으로 구성되는 6개의 보이드 공간으로 유대인의 부재를 상징.			공간	지하 3개층의 길로 이어진 계단으로 움직임으로 펼쳐지는 3개의 이야기. 연속의 계단으로 역사의 연속을 강조하는 가장 긴 길, 베를린을 강제로 떠난 사람들을 기억하는 추방자와 이민자의 정원으로 연결된 길, 홀로코스트 보이드, 죽음의 끝으로 연결된 길			공간	베를린의 오랜 도시 중심부이자 베를린 장벽과 가까이 위치한 장소적 물리적 흔적뿐 아니라 독일과 유대, 서독과 동독의 사이를 상징하는 비가시적인 흔적인 선들의 중첩으로 형성되는 과거의 흔적을 현재에 재조직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복잡화된 시간			
	경계	기존의 건물과 현존하는 역사적인 맥락에 도시구조를 변형시키는 새로운 형태와 공간의 삽입과 파편적 구성			경계	예각의 빈공간 끝의 틈으로 나오는 빛은 홀로코스트를 겪은 여인이 본 희망의 하얀 선을 의미			경계	이질적 재료와 형태의 건물이 놓여짐으로서 주변질서를 파편화하는 몽타주적 불연속성			
프로젝트 개요		잠재적 선의 특성 분석											
Imperial War Museum North	Manchester, UK 2001	무의식과 선			시간과 선			장소와 선					
		형태	공간	경계	형태	공간	관계	형태	공간	관계

Imperial War Museum 복관은 영국에서 1914년 이후 전쟁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자 하며 20세기 충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형태	파편화하였다가 다시 재조합한 지구본을 개념으로 전쟁 후 산산히 파괴된 세계를 표현한 불확정적 형태			형태	1914년 전쟁이후 영국시민들의 삶이 서로 충돌하면서 파편화되고 붕괴되었던 흔적
	공간	지구 파편은 지상왕조들의 갈등과 전쟁의 박물관 공간, 하늘 파편은 이미지들과 전망대, 교육공간을 포함하는 극적인 출입구, 물 파편은 레스토랑, 카페, 데크와, 퍼포먼스공간의 운하를 내려다보는 플랫폼			공간	움직임의 점하고 펼쳐지는 구성과 빛의 움직임이 얹혀서 지속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험							
	경계				경계								
								기존 도시적 맥락과 이질적인 빛나는 재료를 사용하여 불연속적이며 새로운 도시적 활력을 생성					

프로젝트 개요		잠재적 선의 특성 분석									
Danish Jewish Museum	Copenhagen, Denmark	무의식과 선			시간과 선			장소와 선			
		형태	공간	경계	형태	공간	관계	형태	공간	관계	
	2005	■	■	■	■	■	■	■	■

Christian the IV때 지은 17세기 건물 안을 보전하면서 새로운 내부공간을 디자인 한 덴마크 유대인 박물관은 1943년 생존한 덴마크 유대인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형태	덴마크에서 유대인의 흔적을 히브리어인 'mitzvah'로 박물관의 형태와 구조와 빛으로 상징화			형태	기존의 건물이 500년 동안에 걸쳐 용도를 변화하면서 겹겹이 쌓아온 흔적과 생존자가 많은 독특한 덴마크 유대인의 경험 흔적			형태	전체 건물은 모험, 역사와 유대인 문화에 대한 다른 이해들이 교차되는 윤곽의 흔적들을 따라, 신체적 정신적인 모험을 표현	
	공간	홀로코스트에서의 덴마크 유대인의 경험은 텍스트 안의 텍스트이듯, 박물관 자체는 건물 안의 건물이 형성			공간	모든 수평·수직의 면들을 동선을 중심으로 꺾고 기울인 선과 사람의 움직임과 빛의 선으로 만들어지는 사건생성			공간	과거-현재-미래가 하나의 대지에서 이질적 시간이 불연속적으로 공존하는 복잡화된 시간	
	경계	기존 건물의 재료와 새로운 재료들이 만남으로 서로 다른 이질적 시간들이 몽타주적으로 중첩되고 새로운 사건의 공간 생성			경계	빛의 선들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덴마크에서 유대인의 미래를 상징			경계		
프로젝트 개요		잠재적 선의 특성 분석									
Extention to Denver Art Museum	Denver, Colorado	무의식과 선			시간과 선			장소와 선			
		형태	공간	경계	형태	공간	관계	형태	공간	관계	
	2006	■	■			■	■	■		■

덴버 예술 박물관은 인디언 미술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으로 이탈리아 건축가 지오 폰티의 기존의 건물을 확장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형태	형태는 로키산맥과 덴버근처 바위 결정의 형태적 영감 받아 폭발할듯한 에너지를 선들의 교차를 통해 형태로 드러냄			공간	산책을 나서는 두 개의 선이라는 끊임없이 접해지는 예측불가능한 선들이 중첩되어 만들어지는 다양한 움직임			형태	공공공간단지의 일부로 주변건물과 연계되어 있고 도심과 시민센터와 연결되는 골드스트라이앵글의 강력한 매트릭스를 형성	
	공간	기존의 벽, 천정, 바닥의 구분이 없어지고 동선인 계단과 복도도 일체화되어 공간의 구축적인 요소들이 부재하는 빛물 질적이며 복수적인 공간들			경계	선형의 개구부를 통한 빛의 선의 회망과 석재와 티타늄 판넬의 사용으로 미래적 의미를 암시			경계	건물 표면에 주변과 이질적 재료인 티타늄 판넬의 사용과 주변과는 이질적인 형태의 등장으로 도시에 새로운 관계와 사건 생성	
	프로젝트 개요		잠재적 선의 특성 분석								
Glass Courtyard	Berlin, Germany	무의식과 선			시간과 선			장소와 선			
		형태	공간	경계	형태	공간	관계	형태	공간	관계	
	2007	■	■		■	■		■	■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중 1735년에 지어진 기존 건물의 중정에 바로크 건물의 중정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확장된 로비로서 디자인되었다.	형태	유대인들의 축제 (Sukkot) 기간동안 수확을 위해 사용하던 가막(Sukkah huts)에서 영감받아 새로운 사건생성의 공간으로 변형			형태	확장된 독특한 건축공간은 바로크 건물의 중정의 가치를 보존하고 박물관이 가진 흔적을 보존			형태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의 바로크건물과 1999년 지어진 선형의 건물들이 잠재적으로 드러내는 매트릭스	
	공간	투명한 유리지붕과 커튼월로 열린 시야를 확보하고 정면의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중정이 외부공간과 확장가능한 부재의 공간			공간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현재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프로그램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생성			공간	기존의 바로크 건물과 1999년에 지어진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과 함께 서로 다른 시간성이 공존하는 역사성	

프로젝트 개요		잠재적 선의 특성 분석								
Royal Ontario Museum	Toronto, Canada	무의식과 선			시간과 선			장소와 선		
	2007	형태	공간	경계	형태	공간	관계	형태	공간	관계
		■	■	■	■	■	■		■	■

캐나다 토론토 다운타운 쿼스콘스에 위치하고 있는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은 1857년 자연사·현대미술박물관으로 개관한 종합 박물관이다. 2007년 크리스탈 느낌을 살려 증축되고 디자인되었다.		형태	5개의 crystal이 서로 교차하는 덩어리들이 드러내는 선		형태	기존 건물을 복원하여 공간이 가지는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경험에 지속		형태		
		공간	두개의 크리스탈의 교차로 생성된 4층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아트리움으로 보이던 공간은 성찰을 유도하는 텅 빈 공간		공간	방향의 계단으로 알려져 있는 4번째 크리스탈과 아트리움 공간을 지나는 브리지를 통한 지속적 변화의 움직임선		공간	기존 건물의 석재가 가지는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움직임을 드러내는 선들, 유리 and 스틸의 미래적 재료들이 어우러진 종합	
		경계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질적 형태와 물성의 증축으로 새로운 공간 질서 생성		경계			경계	독특한 형태와 유리, 스틸의 새로운 재료를 통해 도시에 새로운 관계와 사건을 생성	
프로젝트 개요		잠재적 선의 특성 분석								
Contemporary Jewish Museum	San Francisco, California	무의식과 선			시간과 선			장소와 선		
	2008	형태	공간	경계	형태	공간	관계	형태	공간	관계
		■	■		■	■		■	■

19세기 발전소로 사용하던 공간에 위치한 현대 유대인박물관은 21세기 유대인들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유대인들의 삶에 새로운 활기가 되는 상징이 되었다.		형태	유대인의 전통적으로 중요한 글자인 헤트와 유드 두 글자의 상징적이고 수학적인 뉘앙스를 모두 드러냄		형태	발전소로 사용하다가 버려진 공간으로 Willis Polk가 1910년대에 업데이트하였고, 1976년 랜드마크가 되었던 역사의 중첩의 흔적		형태	19세기 후반 발전소로 사용되었던 장소성과 1976년 랜드마크로 사용된 도시적 장소의 의미	
		공간	기존 공간에 삽입된 매스들이 교차하면서 만드는 유대인의 부재를 의미하는 텅 빈 공간		공간	시선이 분리·차단되어 움직임을 통해서만 공간을 인식하며, 유입되는 빛의 움직임이 공간에 능동적 변화 생성		공간	기존의 발전소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선들과 현재 새로이 세워진 하얀 입면, 빛의 선들이 부재의 빈 공간 안에 서로 중첩	
		경계			경계			경계		
프로젝트 개요		잠재적 선의 특성 분석								
Military History Museum	Dresden, Germany	무의식과 선			시간과 선			장소와 선		
	2011	형태	공간	경계	형태	공간	관계	형태	공간	관계
		■	■	■	■	■		■		■

135년전에 지어진 기존건물에 썬기모양의 투명함의 형상으로 대칭성을 깨뜨린다. 기존건물에는 독일군의 역사를 새로운 공간에는 폭력의 문화를 만드는 사회권력과 인류에 대한 전시가 구성되어 있다.		형태	기존건물의 대칭성을 깨뜨리고 드레스덴의 폭격지점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잠재적 형태		형태	기존의 건물이 가진 권위적인 구조를 통한 과거 역사에 대한 대조와 드레스덴에 폭격이 시작된 지점을 가르키는 역사적 기억		형태	드레스덴의 역사적 기억과 기존건물의 과거 권위주의적 엄격함과 새로 형성된 민주주의 사회의 열린 사고의 매트릭스	
		공간	82피트 높이의 전망대는 현대적 드레스덴으로의 놀라운 광경을 제공하는 비물질적 빈 공간		공간	새로 형성된 열려있는 투명한 공간은 드레스덴 도시를 향하는 사람과 시선의 움직임으로 과거의 지속으로의 현재		공간		
		경계	썬기모양의 형상은 기존건물의 구조적 질서에 끼어들어 대담하게 기존건물을 파편화하여 새로운 공간질서 형성		경계			경계	날카로운 예각으로 실험적으로 도시에 새로운 상징과 활력을 만들어내는 불연속적 관계	

* 사진출처 : 다니엘 리베스킨트 공식 웹사이트, www.daniel-libeskind.com

3.3. 소결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공간에 표현된 잠재적 선의 특성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공간 분석에서 나타난 잠재적 선의 특성

잠재적 선의 특성		표현내용	잠재적 선의 특성		표현내용	잠재적 선의 특성		표현내용
무의식과 선			시간과 선			장소와 선		
불확정적 형태	불확정성	장소나 사물이 가진 잠재성을 현실화하여 구체적 확장성을 부여할 수 없는 형태	과거와 흔적	중첩성	개인 혹은 집단이 가지거나 대지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흔적이 시간에 따라 쌓인 중첩	도시적 매트릭스	은유성	도시적 정보들과 흔적들의 선들을 비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은유
	변형성	비가시적 잠재적 힘들에 의해 다양하게 변형 가능한 형태		지속성	과거의 흔적 자체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잠재성을 건축적 현실화하여 지속		능동성	장소가 가진 비가시적 선들을 파악하여 아직없는 형태와 사건들을 능동적으로 생성
텅 빈 공간	복수성	다양한 선들의 교차와 중첩으로 만들어지는 차이들을 가지는 이질적인 복수의 공간들	움직임의 미로	예측 불가능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미로처럼 비예상적인 사건들이 불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성	복잡화된 역사성	동시성	과거가 불연속적으로 현재와 중첩되고 미래의 사건들도 불연속적으로 동시에 공존
	비물질성	부재와 침묵의 비가시적 잠재적 의미를 드러내 물성들 사이의 비어있는 비물질성		유희성	다양한 움직임의 선들이 지속의 개념을 가진 새로운 변화와 경험을 생성		함축성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이 흔적, 움직임, 정보들의 여러겹으로 얹여 함축
생성적 경계	파편성	드러난 형태와 비가시적인 동선의 상호작용을 통한 파편적 공간구성	빛과 희망	상징성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경험을 통해 희망과 믿음을 상징하는 미래로의 관계의 상징	불연속적 몽타주	불연속성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의 배경을 가진 이질적 텍스트들을 몽타주로 불연속적 연결
	이접성	기존건물과 새로운 건물의 이질적 형태와 물성이 충돌하여 생성되는 경계		인간성	돌아오는 역사와 미래를 잠재적으로 담아내는 희망과 믿음의 인간적 구조		실험성	주변의 기존질서를 단절하고 새로운 관계들을 실험적으로 생성

4.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공간에 나타난 잠재적 선의 특성

4.1. 불확정적 생성의 선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나타내는 선에는 인간의 모든 경험과 감각들이 개인과 사회의 무의식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나의 현실태로 형성된 비결정적 형식의 잠재적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지난 200년 동안 대부분의 건축가와 도시 계획가들은 건축의 가시성에 치중했고, 드러내는데 주력했다. 이 때문에 건축가들은 중요한 무언가를 무시했다.”고 하면서 물리적으로 형성된 선보다는 무의식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가시적 층위를 강조하였다.

다니엘 리베스킨트 공간에서 무의식을 드러내는 선은 불확정적 다양성의 특성을 가진다. 이 선은 장소나 사물이 가진 잠재성을 현실화하여 구체적 확장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잠재되어 있는 힘들에 의해 능동적 변형이 가능한 불확정적 다양성의 형태를 드러내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형성된 다양한 선들의 교차와 중첩으로 만들어지는 차이는 이질적인 다수의 공간들을 만들어 유대인으로서의 부재와 침묵의 의미를 가지는 비물질적 공간을 생성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형성된 형태와 공간은 충돌과 접촉의 상호작용을 통해 파편적 공간구성을 하며, 서로 다른 시공간이 이접함으로써 새로운 생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계로의 특성을 가진다.

4.2. 기억과 지속의 선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나는 건축에서 그 존재와 부재 안에서 존재하는 선을 봅니다. 그것의 영원한 결핍에서

아무튼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순환하거나 되돌려보거나 그것은 펼쳐고 통합하는 선으로 시간의 움직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의 선에는 기억과 흔적이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시간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다니엘 리베스킨트 공간에서 시간성이 잠재된 선은 기억과 지속의 특성을 가지는 선이다. 이 선은 과거와 흔적의 특징을 담고 있다. 개인 혹은 집단 혹은 대지가 가진 기억, 흔적들이 중첩되어 있다. 그러나 이 흔적들의 중첩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지속되어 현재와 공존하는 동시적 특성을 가진다. 현재의 시간을 의미하는 선은 사람이나 빛 등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선으로 예측 불가능한 미로처럼 혼돈과 불연속적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선들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사건의 계기가 되는 유희적 특성이 나타난다. 이 기억과 지속의 선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 뿐 아니라 빛의 선으로 미래로의 희망을 상징하는 선의 의미도 가진다. 빛의 선은 홀로코스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역사적 의미에서도 미래로의 희망과 인간적 믿음을 상징하는 선의 특성을 가진다.

4.3. 은유와 함축의 선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장소는 건물과 도시 사이에 경계를 약화시킴으로 장소를 만들고 끊임없이 비가시적인 도시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과거의 자취를 일깨워줌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현재를 그대로를 인식할 수 있는 장소의 의미가 잠재적으로 선에 담겨져 있다.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장소에서 은유와 함축의 선은 도시적 정보들과 흔적들의 선들을 비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이 선들을 통해 대지 혹은 장소에 아직 없는 새로움을 발견하는 능동적 생성의 매트릭스로 특성을 가진다. 이 선은 과거가 불연속적으로 현재와 중첩되고 미래로도 이어지는 서로 다른 시간이 동시에 그러나 불연속적으로 서로 함축된 복잡화된 역사성의 특성을 가진다. 이 장소적 의미의 선들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의 배경을 가진 이질적 감각과 경험, 사건들을 불연속적 몽타주로 연결하여 기존 장소가 가진 질서를 단절하고 새로운 관계들을 실험적으로 만들어내는 감각적 자극으로의 특성을 가진다.

<표 10> 다니엘 리베스킨트 공간에서 잠재적 선의 특성

잠재적 선의 특성	표현 특성 내용
불확정적 생성의 선	· 능동적 변형을 통한 탈정형적 형태의 다양성
	·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부재의 비가시성
	· 충돌과 접속을 통한 생성적 상호작용성
기억과 지속의 선	· 흔적과 중첩의 동시적 현재
	· 불연속적 즐거움의 비밀상적 움직임
	· 미래를 향한 내재적 상징
은유와 함축의 선	· 대지의 자취와 비가시성 사이의 사건
	· 불연속적 동시성의 함축적 순환
	· 감각을 자극하는 이질적 충돌

5. 결론

현대의 잠재성의 의미는 현재와 공존하는 실재로서의 잠재성의 의미를 가진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잠재성을 건축공간에서 내포한 잠재적 형태를 현실적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잠재적 선들의 특성과 그 표현된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정적 생성으로 선의 특성을 가진다.

이 선은 비가시적 층위의 잠재적 선들이 잠재적 힘들에 의해 능동적으로 변형 가능한 불확정적 형태를 의미하며, 이 선들이 중첩되어 교차되어 생긴 비물질성의 공간들의 차이를 통해 무의식적 부재를 특성으로 가진다. 또한 이 선은 드러난 형태와 비가시적 공간들이 파편적 충돌과 이질적 접속을 통해 새로운 사건과 소통을 만들어내는 생성적 경계로서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가진다.

둘째, 기억과 지속으로 선의 특성을 가진다.

이 선은 개인 혹은 사회 혹은 장소가 가진 기억과 흔적의 선들이 중첩되며 현재로 지속되어 현재와 동시성을 지닌다. 또한, 예상되지 않는 사건들의 생성을 새로운 변화와 경험을 만들어내는 불연속적 움직임을 통해 예상을 벗어나는 비밀상적 움직임을 통한 차별화된 유희적 특성을 가진다. 이 기억과 지속의 선은 유대인의 기억을 미래까지 관계 맺도록 하는 내재적 상징성이 포함된다.

셋째, 은유와 함축으로 선의 특성을 가진다.

은유와 함축의 선은 도시정보들과 흔적들을 비가시적 선들로 파악하고 이 흔적과 비가시성 사이에 사건을 생

성해 내는 능동적 선이다. 또한 흔적과 움직임, 미래적 상징을 불연속적으로 동시에 공존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시간이 복잡화된 함축적 선이다. 은유와 함축의 선은 이질적 요소들을 불연속적이며 실험적으로 몽타주하여 새로운 감각을 자극하고 새로운 도시적 관계를 생성해 나가도록 하는 특성을 가진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가진 유대인으로서의 배경을 잠재성의 과거의 상처와 기억을 현재로 지속하여 시간의 의미를 내포하여 현실화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 의미들은 선을 통해 드러내었다. 프랭크 게리가 “베를린에 있는 리베스킨트의 유대인 박물관에 표현된 고통과 분노에 감동하였다”고 하였듯이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표현한 잠재적 선들은 이성적 프로그램과 달리 건축 공간 안에서 개인이나 집단과 공간 혹은 장소가 가지는 잠재적 의미를 드러낸다. 그림으로써 감정적으로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침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의사소통의 예술로서 새로운 생성의 건축이 되도록 한다.

참고문헌

1. 박성수, 들뢰즈, 이룸, 2004
2. 봉일범, 잠재성의 차원, spacetime, 2005
3. 봉일범, 건축의 외연, spacetime, 2005
4. 이정우, 집합과 펼쳐짐, 그린비, 2012
5. 다니엘 리베스킨트, 낙천주의 건축가, 하현희 역, 마음산책, 2006
6. 존라이크만, 김재인 역, 들뢰즈 커넥션, 현실문화연구, 2005
7. 질 들뢰즈, 베르그송주의, 김재인 역, 문학과 지성사, 1996
8.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하태환 역, 민음사, 2008
9. 질 들뢰즈,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역, 이학사, 2007
10. 힐쉬베르거, 서양철학사 상권, 강성위 역, 이문출판사, 2008
11. Daniel Libeskind, 'Collage' in Education of Architecture, The Monacelli Press, New York, 1999
12. Daniel Libeskind, The space of encounter, Universe, New York, 2000
13. Daniel Libeskind, El Croquis 80, Spain, 1996
14. K. Michael Hays,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MIT Press, Cambridge, 2000
15. Articles on Daniel Libeskind Buildings, Hephaestus Books, 2011
16. 권태일·이동연, 근원적 다양성으로 본 집합의 건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권 10호, 2004
17. 송진호,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공간사고와 디자인 수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1
18. 이도희,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적 사고와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31권 1호, 2004
19. 이선혜·송대호,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이념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 4호, 2011
20. 정인하·김홍수, 다니엘 리베스킨트 건축 공간 개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건축역사연구논문집, 2002
21. 이정우, 현실성·잠재성·가능성, 건축과 사회, 거울, 2008
22. <http://www.daniel-libeskind.com/>

[논문접수 : 2013. 02. 28]

[1차 심사 : 2013. 03. 20]

[게재확정 : 2013. 04. 12]